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6호 / 2026년 07월 28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정몽원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

- 대표이사와 총괄대표, 중대재해 사망사고 수사 대상

지난주 24일 전북 군산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또다시 끼임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일했던 곳은 달라도, 노동자의 죽음 앞에 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철의노동자를 통해 왜? 정몽원 회장이 나서야 하는가? 몇차례 언급했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유가족과 진심어린 협의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노동조합은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척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 인력 및 외주 문제 개선, 안전관리 체계 개편 등에 대해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긴급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0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 정몽원 회장과 면담을 요구합니다!

공장 내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원청과 하청을 떠나 명확한 진상조사는 기본이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사망사고는 중대재해가 분명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불가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성실조사,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유가족과 대화 등을 현재 대표이사과 총괄대표가 이어갈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해결하고,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몽원 회장뿐입니다.

중대재해 대응도, 임단협 교섭도 물리설 수 없다!

— 29일 오전, 임단협 2차, 오후 노사협의, 30일 긴급 산안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조합원의 삶을 지키는 일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중대재해를 포함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권리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29일(수), 오전에 2차 임단협 교섭이 진행됩니다. 교섭에서 상반기 경영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30일(목)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 사측, 이제 노동조합 요구안에 답을 해야 한다!

이번 2차 교섭은 경영실적 보고로 시작되겠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밝혔지만, 대표이사과 총괄대표가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얼마나 검토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그리고 실질임금 회복과 노조활동 보장을 핵심요구로 내 걸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조합원의 절절한 요구입니다.

사측은 중대재해 수습을 이유로 임단협 교섭을 미뤄서도 안되고, 임단협을 이유로 중대재해 대책을 소홀히 해서도 안됩니다. 사측은 두 가지 문제 모두에 책임있게 답해야 합니다.

□ 임단협 교섭과 노사협의까지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는다!

이번 임단협은 일상적인 교섭이 아닙니다. 기업노조 14년을 뒤로하고 금속노조로 복귀한 만도지부의 첫 임단협 교섭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달라진 만큼 회사 또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섭은 교섭위원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임단협 요구는 현장의 요구이기에 조합원의 참여가 교섭의 힘이 됩니다. 이번 중대재해를 포함해 임단협과 노사협의까지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